

2021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식지 제2호

포평생 in

제주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평생교육의 장
미래인재양성과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해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당신의 배움과 성장을 응원합니다.



Contents

▪ 들어가면서	3
▪ 배움 ON, 삶을 빛습니다	6
- 가족이 웃엄덴(김효영)	6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과 아름다운 삶을 함께해요(김미경)	7
- 부끄럽게 발음했던 경험이 흐뭇함으로(김경미)	8
- 사랑이 피어나는 마을공방(임시숙)	9
- sk텔레콤과 함께하는 AI활용 SW개발 인력양성(이도영)	10
- 제주시자기주도학습센터가 아이를 키웠다(양혜경)	11
- A부터 Z까지 성장하기(김현지)	12
- 뷰티풀마인드(오연화)	13
- 그림책 마음을 치유하며(김현희)	14
▪ 현장 인물 조명	16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순간들	19
- 전략사업부	19
- 평생교육부	20
- 인재육성부	21
-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사업	23
-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24
- 중국어체험학습관	26
- 꿈바당어린이도서관	27
▪ (재)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29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브로셔	30
(기부자 혜택 및 예우, 기부금 용도 10-11)	



배움은 나를 찾는 행복의 길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Jiles)에 몸을 담고 지내 온 2년을 되돌아보는 시간. 문득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했던 초대 이안열 원장님의 경영 모토가 떠오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원장님의 바통을 이어서 출근하던 날, 책상 위에 자리한 난초가 하얀 웃음으로 반겨주는데, 꽃보다도 보내주신 멘토의 미소가 더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분은 꽃과 함께 “배움은 큰 나(眞我)를 찾는 길입니다. 큰 나(眞我)는 니체의 Zarathustra에 나오는 Self이고, 진(眞)아는 열반의 경지에 이른 것을 뜻합니다. 좀 쉽게 말하면 배움은 나를 찾는 행복의 길입니다”라는 엽서를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2년 동안 Jiles의 모토를 ‘배움은 나를 찾는 행복의 길’이라 하였습니다.

사실 「평생교육법」에서 규정하는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성인 문자해득,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합니다. 따라서 Jiles의 설립 및 운영조례에도 문해교육을 필두로 장애인·이주민 등 소외계층 평생교육의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이 강조됩니다.

2020년도 사업 중 제주문해교육사업, 초등과정 문해교육 교원양성과정, 사회적배려계층 평생교육 지원사업 등이 제 때에 배우지 못했거나 생활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배움을 통한 행복’을 제공하고자 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또한 초기조직의 기틀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주지역 평생교육 개인·기관 실태 조사, 평생교육 및 인재육성 연구,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실태조사 등에 열정을 담백 쏟았습니다.

참, 제 가슴에 아직도 잔상으로 꿈틀대는 것은 코로나 19로 인해 청년 해외배낭연수 사업을 지속할 수 없어서 대기업인 SKT와 함께 AI청년인재육성 사업을 전개했던 일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자는 취지에서 급작스레 바뀐 사업의 교육생을 모집하기 위해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등을 찾아가 포스터를 붙이던 게 엇그제 같습니다. 덕분에 경기도 여주에 있는 SKT연수원에서 제주청년들이 밤늦은 시각까지 팀별 과제를 수행한다고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며 토론하는 모습을 감격스럽게 바라보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올해에 이어 지난 2년 동안 SKT와 함께 AI인재육성에 전력투구해 준 홍정순 부장과 SK텔레콤의 황은동 팀장께 고마운 인사를 전합니다.

2021년도 들어서는 문해교육센터로 지정받아 국비사업의 제주해녀 꿈바당학교를 열 수 있었던 일이 가슴 뭉클하게 남아 있습니다. 금능과 김녕 마을의 해녀삼촌들이 한글을 배워서 물질인생을 시로 쓰고 바닷속 세상을 그림으로 그려서 시화전, ‘글자에 담은 희망의 여정’을 열었습니다. ‘숨비소리 한숨소리’라는 제목처럼 바다물질보다 더 어려운 한글공부의 애환이 엿보여 울컥하였습니다. ‘바당에선 물질 상군, 책속에선 한글 핫바리. 열길 물 속 숨비소리, 책 속에선 한숨소리, 전복 캐듯 글자 주워 공책에 담아보지만, 비틀비틀. 언제쯤 책 속에서 상군이 되어 볼까?’ 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지정 세계무형문화유산이고 보면, 해녀분들의 시화는 바다 속에서 건져 올린 세계적 걸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치 깊은 바다속에 감춰진 전복처럼 말입니다. ‘성님 바당에 걸음썬, 성님 부르 명, 사그네 물에 밥 조망 먹영, 재기재기 성세기 바당에 강, 바당물에 들민, 소라 생복 트민, 요왕할 망 고맙수다. 오늘 소망 이뤄수다’라는 해녀의 글에는, 제목 그대로 ‘행복’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선배 해녀에게 물질 가자고 소리치면서, 선 채로 물에 밥 말아 먹고, 서둘러서 가는 바다. 신의 선물 같은 전복을 잡게 된 기쁨이 보는 이의 가슴도 설레게 합니다. 함께 수고해주신 영락종합사회복지관, 서귀포오석학교, 제주장애인야간학교, 아라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진심어린 수고가 오래토록 가슴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지난 2년 동안 평생교육부를 맡아 본연의 역할을 다해 준 김재필 부장의 수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쯤에서 글을 맺으려고 보니,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에 들어 있는 595개 평생 교육기관들과 형성된 네트워크가 손목을 붙잡습니다. 사실 Jiles는 제주지역 평생교육의 컨트롤 타워로서 계획수립, 연구조사, 프로그램과 컨설팅, 기본적인 사업들을 수행하지만, ‘성숙한 평생학습 사회 제주 실현’의 미션을 완수하려면 네트워크 기관들이 한 몸이 되어 함께 평생학습의 역할들을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코로나 19로 인해 네트워크별 학습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제주도민 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포럼이나 한마당 축제를 벌일 수가 없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모저모로 네트워크 기관들과 조직적으로 협력하면서, 제주포럼과 평생교육 포럼, 평생학습 한마당을 통해 소통과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공동사업까지 창출 해 낸 홍숙희 부장에게 우정어린 고마움을 전합니다. 더불어 제주도정이 실시하는 공기업경영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려준 전략사업부에 뜨거운 감사를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Jiles가 기획재정부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아 그동안 묶여 있던 124억 8천만 원의 장학기금을 조금이나마 확충할 수 있게 된 일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인재육성장 학기금발전위원회를 구축해서 이유근 위원장님과 박경후 부이사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헌신과 열정으로, 화민주택건설과 SPC 행복한재단으로부터 각각 1천만원의 기금을 받을 수 있었던 일은 Jiles의 장학 역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사건이 됩니다. 앞으로도 강상우교사의 가족을 비롯해서 제주인재육성장학기금에 뜻을 같이해 줄 분들이 기부과정 중에 있으니, 더 많은 열매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때를 따라 주렁주렁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주인으로 살아오면서 ‘사람은 나면 서울로, 말은 나면 제주로’라는 속담을 뼈아프게 느껴 왔습니다. 내년 봄, Jiles가 새로운 청사로 이전을 하고, 평생교육과 인재육성의 두 날개를 활짝 펴서 본격적인 도약의 몸짓을 전개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사람은 나면 제주로’라는 새로운 격언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Jiles의 모든 고객과 관계자분들께서도 저희가 결단한 바 공정, 도약, 자립의 가치로, ‘제주인의 삶과 배움을 연결하는 평생교육 전문기관’의 비전을 향한 날갯짓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더욱 건승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숨비소리 한숨소리

강 매옥

바다에선 물질 상군
책속에선 한글 핫바리.
열길 물속 숨비소리
망사리 속 바다보물가득.
책속에선 한숨소리
전복 캐듯 글자주워
공책에 담아 보지만,
친구는 또박 또박 나는 비틀비틀!
언제쯤,
책속에서 상군이 되어 볼까?
바다속에서 바늘찾기구나!



학습 참여수기

배움 ON,
삶을 빛습니다

가족이 웃엄텐

플로깅 활동 앞장,
변화된 가족문화

김효영(외도초 학부모)



아이들은 정말 무럭무럭 자란다. 벌써 큰 아이는 4학년, 작은 아이는 2학년이다. 아이들이 한 뼘 두 뼘 키가 자라는 것만큼 우리 가족이 꿈바당 도서관에 다닌 시간도 차곡 차곡 쌓여가고 있었다. 그렇게 주말마다 도서관에서 책과 노닐고 있었는데, 운명같이 영상공모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이던가. 도서관에 올 때마다 보이던 공모전 포스터는 우리에게 단지 종이에 불과했었다. 작년 공모전에서 꿈낭상을 받았던 터라, 그 이상의 상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바쁜단 핑계로 그 포스터를 외면하고 있었다. 그런데 운명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았다.

이날도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있었는데, 사서 선생님께서 인사말처럼 “은성이 어머니, 이번에는 공모전에 응모 안 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겠는가. 이 스쳐 지나가는 말 한마디는 우리 가족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그날 바로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회의를 열었다. 우리가 도서관을 이렇게 자주 이용하는데, 당연히 공모전에 응모해야지 않겠냐며 환경 관련 책부터 찾기 시작했다.

환경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이왕이면 제주어가 있는 책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렇게 선택된 책이 바다 쓰레기 문제를 다룬 「바당이 웃엄텐」이었다. 책이 정해졌으니 어떻게 이야기를 이끌어 가면 좋을지 우리는 머리를 모았다. 우리가 책 주인공이 되어서 연극을 해보자는 의견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무대는 일사천리로 만들어졌다. 큰 아이는 토돌이 역할을, 작은 아이는 고양이 역할을 맡아 한 편의 연극을 재현했다. 엄마는 전체적인 구상 시나리오와 촬영, 내레이션을 맡았다. 아이들이 각자의 역할을 척척 해내는 모습이 정말 놀라웠다. 마치 이날을 위해 그동안 실력을 갈고 닦았나 싶을 정도로 기대 이상을 해냈다.

이렇게 1차 영상은 만들어졌고, 2차 영상으로 야외촬영을 추가했다. 직접 외도 바당과 내도 알작지를 찾아가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했다. 생각보다 많은 쓰레기에 놀랐고, 왜 도서관에서 ‘환경’ 주제로 영상공모전을 기획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변하기를 기다리기 전에 우리부터 먼저 솔선수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빠의 편집까지 더해져 최종 완성된 영상은 영광스럽게도 꿈바당상을 우리에게 안겨주었다. 그때의 감격은 지금도 전율을 일으킨다.

이번 영상공모전을 통해 우리 가족은 정말 많이 변했다. 오름을 올라갈 때는 꼭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가서 오름 여기저기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다. 뛰거나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플로깅’이라고 한다. 우리 가족은 이 활동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고 있다. 이번 영상공모전 덕분에 큰 상도 받고, 환경도 보호하고, 가족 화목도 더해졌으니 이것이야말로 일석삼조가 아닐까 싶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마음의 양식을 맘껏 제공해주고 있는 꿈바당 도서관에 이 영광을 돌린다.

학습 참여수기

배움 ON,
삶을 빛습니다

제주평생교육 장학진흥원과 아름다운 삶을 함께해요

김미경



나의 인생 중 어느 순간부터 50세를 바라보고 살았다. 세월이 흘러 그 시간에는 나만의 시간과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리라는 다짐을 하면서 열심히 달려왔다. 후회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를 고민하면서.

50세 인생전환기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프로젝트로 진행된 제주공동체문화활동가 양성과정, 심화, 역량과정까지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했다. 특히 장애인교육센터에서 활동한 시간 중 그들의 웃음과 작은 몸짓들이 잊지못 할 소중한 시간으로 남는다.

봉사활동으로 책임여주기 활동을 하고 있었던 일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소중한 시간으로 삶의 터닝 포인트였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인생학교에서 사례발표를 해달라는 요청에 가슴도 설레어도 보고, 발표장으로 가는 걸음에 문득 떠올라 시작하는 멘트로 얘기 나눴던 나태주 시인의 ‘풀꽃’을 다시금 되새겨본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오래보아야 사랑스럽다/너도 그렇다.

자신을 자세히 바라봐 주고 사랑해주라고 외치는 듯 했다. 자신이 좋아 하는 게 무엇인지, 어떤 삶을 원하는지,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게 하였다. 돌아보게 되는 나의 삶은 행복을 위해 달려 왔다가 보단 행복하면서 달리는 것 같았다. 지금 하고 싶은 게 뭔지, 행동으로 옮기고 새로운 것을 도전해보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얼까 고민도 하며 가고 있었다.

탐라(제주)에 사는, 남들이 탐낼만큼 아름다운 5060세대프로젝트

제주공동체문화 활동가, 씨앗동아리활동(사진동호회 찍죽회)을 하면서 하고 있는 활동들을 더욱 구체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서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함과 누군가를 위해 나눌 수 있다라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남들이 탐낼 만큼의 삶을 누리려고 활동한 이곳(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새삼 큰 ‘잇돌’로 다가온다.

학습 참여수기

배움 ON,
삶을 빛습니다

부끄럽게 발음했던 경험이 흐뭇함으로

김경미(제주시, 조천읍)

저는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중국어체험학습관에서 지난 11월에 외국어 교육(생활영어, 안정아 강사)을 이수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이 타시도에 비해 상당히 높은 지역이지만 아직 대면 학습 방식이 좀 꺼려지는 상황이어서 온라인 실시간 원격 교육과정을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첫 시간에 탄탄한 구성으로 진행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도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장감 있는 두 사람의 대화, 주요 단어와 보충 단어, 그리고 학습 포인트와 문법 정리, 회화 연습 등 매 시간 다양한 주제로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주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 학습 주제는 <제주 민속 오일장>이었고 전통시장, 민속시장이라는 'folk market'을 보는 순간, 제가 오래 전에 'folk[fouk]'를 비속어인 'fu**[fʌk]'로 잘못 발음해서 무척 부끄러운 일이 발생했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한 기관에서 한국어 강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여름방학을 맞아 고국 방문을 했던 교포들에게 민속촌을 설명하다가 교재에 영어가 있어 굳이 제가 읽지 않아도 되는 이 단어를 읽자 여학생들이 책상을 두드리고 발을 구르면서 깔깔대고 웃었던 것입니다.

종합영어를 외우며 영어 문법과 독해에만 집중했지, 회화라고는 접하지 못했던 시절에 학교를 다닌 세대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지만 그 때는 영어 환경이 그러했다고 변명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건이 되는 대로 영어 회화 공부를 조금씩 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어체험학습관에서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활영어와 발음 강화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수준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시고 멋진 교육 운영을 하시어 큰 학습공동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습
참여수기

배움 ON,
삶을 빛습니다

사랑이 피어나는
마을공방

임시숙(북촌리 새마을부녀회장)



안녕하세요. 저는 북촌리 새마을부녀회장 임시숙입니다.

저희 마을 주민과 부녀회원들은 코로나19 유행 이전 다른 어느 마을보다 소통과 화합이 잘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의 일상화로 인해 그 전보다는 비교적 소통과 화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어떤 식으로 타파하면 좋을지 고민하던 중 평생교육장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알고 북촌리사무장의 서류일체를 도와주게 되었고 우리 마을의 화합을 위한 사업을 구상하여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마을 뿐 아니라 수많은 신청서가 접수되었음에도 저희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해주신 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녀회는 ‘핸드메이드 겨울조끼 뜨기’, ‘미싱으로 소품 및 옷 만들기’ 과정을 통해 진흥원의 사업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성실하게 운영하였습니다. 지역주민 누구나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특정 난이도를 설정하지 않고 개인별 맞춤형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단 한명의 낙오자도 없이 핸드메이드 소품과 의류 등 결과물을 창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물을 통해 개인의 성취감을 얻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지역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전달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조금은 약화되었던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데 이바지하였습니다.

이번기회로 우리 북촌새마을 부녀회는 원주민과 이주민이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 그리고 화합으로 부녀회원들간에도 더욱더 돈독하고 공동체 활성화로 한 해 마무리를 보내게 되어 부녀회장으로써 아주 뭉클하며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금회 과정을 통해 숙지한 미싱 사용법 등을 통해 사업이 마무리 된 것과 별개로 지역주민 자체적으로 취약계층 대상 재능기부 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조금은 멀어졌던 지역주민들 간의 심리적 거리감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고 지역주민들의 일상에 소소한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회 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저희 마을에 화합의 장이 열렸듯이, 진흥원에서는 앞으로 지원 사업의 확대 및 다각화를 통해 저희 마을뿐 아니라 도 내 전반적으로 지역 사회가 활성화 되는데 이바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 부녀회 사업을 지원하여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습 참여수기

배움 ON,
삶을 빛습니다

SK 텔레콤과 함께하는 AI활용 SW 개발 인력 양성

이도영
(㈜인포마크 코딩연구소
선임연구원)



올 한해 제주도는 저에게 참 특별한 곳입니다. 8월부터 12월까지 'SK telecom과 함께하는 AI활용 SW 개발 인력 양성 교육'을 진행하면서 여러 차례 제주도에 방문하고 많은 제주도민분을 만나면서 뜻 깊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해당 교육은 제주도 도민을 대상으로 코딩의 기초부터 시작해서 인공지능 음성인식 서비스를 기획하고 실제로 만들어보는 과정입니다.

코딩이라는 분야는 아무리 쉽게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분야이고 실제 서비스까지 만들기는 절대 쉽지 않은 과정이기 때문에 제주도 도민분들께서 재미있게 생각하실까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무색할 만큼 다양한 연령대의 많은 분께서 참여해 주시고 마지막에 훌륭한 서비스로 결과물을 만들어 내시는 것을 보고 배움에 대한 열정에 정말 감동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분께서 재미있고 유익한 교육이었다는 피드백을 해주셔서 교육을 이끌어간 강사로서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음성인식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은 4단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AI 로봇과 블록 코딩을 활용해서 코딩의 기초 개념을 익혔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심화 과정으로 본인의 적성에 맞게 기획, 개발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하였습니다. 기획 과정에서는 하나의 서비스를 골라서 기획서를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개발 과정에서는 파이썬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 보았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SK telecom에서 보유하고 있는 음성인식 NUGU 서비스 개발 플랫폼(Nugu Developers)으로 음성인식 서비스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마지막 단계에서 앞 단계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실제로 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해보는 프로젝트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코딩을 이론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이디어 낸 것을 구현해보는 것까지 해볼 수 있어서 좀 더 코딩을 제대로 배운 것 같다는 교육생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AI로봇을 활용하여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코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강사 교육과 강사 연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SK telecom의 현직 멘토분들과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해주신 특별 강연은 많은 교육생분께서 막연했던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발표회 전에 앞서 1박 2일로 서울을지로에 있는 SK telecom 본사 건물에 모여 티움 미래 체험관 견학하고 중간발표 및 피드백 시간을 가졌는데 멋진 공간에서 좋은 분들과 함께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교육생분들뿐 아니라 강사들에게도 이 시간이 참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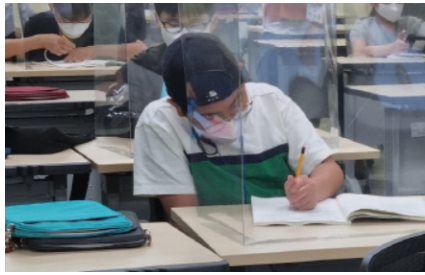
돌아보니 정말 많은 교육과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4개월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제주 평생교육 장학진흥원 관계자분들 및 SK telecom 멘토분들과 열정적으로 함께 해주신 강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교육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습 참여수기

배움 ON,
삶을 빛습니다

제주시 자기주도 학습센터가 아이를 키웠다.

양혜경(이도초 6학년 학부모)



태국에서 2년 간 생활을 하고 2020년 2월에 귀국했을 때 초등 5학년 아들의 교육이 큰 고민 중 하나였습니다. 그 동안 학교교육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고학년이 된 아들에게 무엇을 먼저 가르쳐야 할지 막막함을 가진 채 문제지 하나 달랑 사다 놓고 아이 학습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자기주도학습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께서 코딩 프로그램이 좋은데 한번 신청해 보라는 말에 냉큼 코딩 수업을 접수하고 아이에게 수업 받아보라고 강요 아닌 강요를 했었습니다. 사실 코딩이란 교육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던 터라 생소한 교육을 접해보려 하니 아이의 거부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첫 수업에 어렵고 힘들었지만 나름 괜찮았다란 아이의 말에 자기주도학습센터에서 코딩 수업 프로그램을 빠짐없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힘들다 했던 수업이 어느새 익숙해지고 자신감도 갖게 된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뿌듯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코딩 선생님이 이젠 자신의 이름도 아신다며 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수업으로 인해 다른 새로운 수업들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기주도학습센터에서 ‘학습 컨설팅’을 하며 자신의 학습플래너를 적고 새벽부터 자신이 할 일을 차근차근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성장과 위기를 반복하면서 조금씩 익숙해져 갈 무렵 ‘2020년 제주 평생학습한마당’에서 아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발표하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때 준비는 어려웠지만, 그 경험이 우리 아이에게 큰 전환이 되었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영재교육(수학·과학) 합격하고 영재학습 창의적 산출물 발표대회 우수상을 받으며 6학년 마지막 생활을 알차게 보내고 있습니다. 자기주도학습센터에서 컨설팅과 코딩 등의 교육을 받고 6학년이 되면서 각종 대회에 참여하고 상을 받는 값진 보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학원을 보내지 않고 센터에서 가르쳐준 수업만으로도 수상과 스스로의 공부, 그리고 영재교육까지 우리 아이의 학업 관련은 모두 자기주도학습센터에서 선생님의 노력과 좋은 프로그램으로 저희 아이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이곳에서 제 아이 학습능력을 키웠습니다.

늘 주변 학부모에게 소개하고 자랑할 만큼 제주자기주도학습센터는 저의 아이들에게 꿈을 실현시키게 하는 고마운 곳입니다. 곧 둘째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데 어김없이 센터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저희 둘째도 잘 키워주세요. 늘 감사합니다.

학습 참여수기

배움 ON,
삶을 빛습니다

A 부터 Z까지 성장하기

김현지(대학생)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정체된 느낌과 무력감을 느껴 교수님과 선배들에게 고민 털어놓자 코딩을 배우는 것을 추천하였습니다. 하지만, 학교의 코딩과목은 공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학원 강의는 금전적인 부담이 있었습니다. 도전은 하고 싶으나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는지 몰라 헤매고 있을 때 마침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제공하는 AI 교육을 보고 부담 없이 시작하기에 좋은 기회라 생각하여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AI 인공지능 모델 알버트 및 교재, 교구를 이용하여 교육이 진행되었고, 강사 양성 및 심화 과정을 통해서 학습 수준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슬랙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하여 코드를 비교하며 서로에게 본보기가 되기도 하고, 어려울 때마다 강사님의 피드백을 받으며 발전해 나갔습니다. 더불어 중반에는 AI 분야의 저명한 교수님들과 전문가들의 강연을 통해 현장에서 어떻게 AI가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으며, SK telecom 틱움 견학을 통해 피부로 현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장 만족스러웠던 것은 팀을 구성하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개발자가 돼보는 경험은 단순히 코딩을 배우는 것 이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팀원들은 개발과 기획 경험이 없는 초보자였지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고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강사님들과 SK 현직자 분들의 조언을 얻으며 한발씩 나아가다 보니 프로젝트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코딩을 배우는 것을 넘어 어떻게 응용하고 적용할 것인지 A부터 Z까지 단계적으로 성장시켜주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코로나로 비대면 수업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격수업이 장애가 된다고 느끼지 못했으며, 강사님들의 빠른 피드백과 열정적인 교육으로 대면수업 못지않게 알찬 수업이었습니다.

코딩을 다루지도 못했던 제가 결국 하나의 프로젝트를 구현해냈다는 성취감은 이루 말할 것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험 덕분에 AI 관련 분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으며, AI 관련 분야가 아니더라도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개발하는 과정까지 경험을 해보았기에 다른 분야에서의 프로젝트 기획, 개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느꼈습니다. 타 기관에서 주관하는 코딩 프로그램은 단순히 코드를 짜는 형식으로 마무리하고 끝나지만, 이번 과정에서는 현직에 계신 전문 강사님들의 열정, 탄탄한 커리큘럼, SK텔레콤의 지원과 협조 그리고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지속 관리, 감독으로 더 알차고 풍부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제주도민이 전문 인력으로 나아갈 자신감과 능력을 얻어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보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민을 위해 항상 노력해주시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학습 참여수기

배움 ON,
삶을 빛습니다

뷰티폴마인드

오연화

(2021년 제주인재육성 장학생)

제주인재육성장학생 사회적 가치실현 활동 동아리에 참여하며, “코로나 블루 아웃(COVID-19 OUT)”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들을 진행했다.

활동을 시작했던 9월과 10월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지 않아 신청자들과 대면으로 만나는 활동들에 제약이 있었다. 때문에 9월과 10월은 신청자들이 아닌, 동아리 팀원들과 함께 오프라인으로 우리 동아리의 취지를 알리고 홍보함과 동시에, 코로나 블루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여러 정보들을 공유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활동 중, ‘공감툰 제작하기’와 ‘인포데믹(info-demic) 판별법’ 활동이 있었는데, 위 활동들은 참가자들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동아리 게시물을 보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연대하고, 우리 동아리의 가치를 가장 잘 알릴 수 있었던 활동들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10월부터는 상황이 조금 좋아져, 방역지침에 따라 백신 2차를 접종하고 2주 이상이 된 자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는 참가자에 한해, 대면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다. 특히 대면 활동을 통해 꾸준히 참가자들과 소통하며, “이렇게 누군 만나고 무언가를 하러 밖에 나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답답했던 일상이 환기가 되는 듯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나누었다. 우리 동아리의 취지가 적확하게 전달되는 순간이었다. 대면 활동에서는 손 소독제와 비누 만들기, 마스크 스트랩 만들기, 라탄 컵 받침대 만들기 등의 활동을 해왔는데, 활동 참가자들이 활동에 대해 너무 만족하고 흥미를 가져주어서 활동을 진행하며 매우 뿌듯하고 보람찼다. 대면을 하며 사회적인 소통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만들기 활동을 통해 성취감을 불러 일으키고, 소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집중력을 고양시킬 수 있었다.

지속적으로 바뀌는 상황과 장담할 수 없는 활동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재미있는 활동을 함께 제작해준 동아리 부원들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참가자들이 있었기에, 이번 2021 제주인재육성장학생 사회적 가치실현 동아리 활동을 무사히, 재미있게 끝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동아리 ‘뷰티폴 마인드’가 위와 같이 다양한 활동들을 기획하고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준 제주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감사함을 돌린다. 본 활동을 통해 얻은 게 많았는데, 이를 가지고 더욱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어 보다 더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습 참여수기

배움 ON,
삶을 빛습니다

그림책 마음치유를 진행하며

김현희(노고록 상담연구회)



제주도민과 이주민으로 이루어진 상담가들의 모임으로 구성된 노고록 상담연구회는, 그림책 부분에서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2021년 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 사업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진행 초기에는 회원 중에는 그림책으로 이미 활동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림책을 처음 접한 사람들도 계셨기에, 기초반을 만들되 상담 현장에서 필요한 주제들로 설정해서 강사님께 주제에 맞는 교재를 선정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강사님께서서는 흔쾌히 응해 주셨고, 신간 위주의 교재로 이루어진 교육은 모든 청강생들의 마음을 끌어당기기에 충분했습니다.

진행 중에는 코로나 단계 상승으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어려울까봐 걱정도 했지만, 다행히 마지막에 코로나 단계가 하강하면서 참여가 가능한 회원님들의 지원을 받아서 강사를 구성하여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진행 마지막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은 아동센터장님께서 알려주신 센터 아이들에게 가장 해결이 시급한 문제를 다루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왕따와 폭력성을 보이는 저학년에게는 [함께하는 나]라는 주제로, 꿈도 없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고학년에게는 [꿈꾸는 나]라는 주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담활동만 진행할 때보다 그림책으로 주제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게 되니, 상담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집중도가 훨씬 좋았다는 것을 피부로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걱정과는 달리 즐겁게 참여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보시던 센터장님께서서는 “그림책 수업, 아이들 마음에 많이 남는 수업일 것 같아요. 나와 다른 친구를 몸으로 받아들이는 경험이 쌓이면 도토리들 덜 싸우겠지요^^”라고 후기를 남겨 주셨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 모든 회원들은 수업 교재로 받은 그림책들을 상담 현장에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과 잦은 질문에도 성심껏 이해하기 쉽게 답해 주신 담당자님께도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아름다운 겨울제주

'그 누구보다도 당신을 사랑합니다'는 의미와
엄동설한에 꽃을 피운다고 해
'청렴'과 '절조'라는 꽃말을 가진 동백

동백은 제주지역에서 자생하는 차나무과의 나무로 녹색의
윤기나는 잎과 붉고 노란 꽃밥이 대비를 이루는게 특징이다.



동백은 장수(長壽)할 뿐만 아니라 사계절 진한 녹색이 변하지 않는 데다 겨울에 꽃을 피운다. 윤기가 흐르고 광택이 있는 진한 녹색의 잎 사이로 붉게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에 옛사람들은 자연히 신비함을 느끼고 그 아름다움에 도취되었다고 한다. 향기가 없는 것이 특징이지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워 겨울 제주는 동백을 찾는 관광객으로 가득찬다.

이번 겨울 아름다운 동백꽃을 보며 답답한 일상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 행복한 시간을 가져보는건 어떨까.

현장 인물 조명

감독 오명



제주의 삶과 풍경을 진저리치게 사랑하는 오명, 그를 만나다

봄날처럼 햇살이 쏟아지는 초겨울 입구에서 우리나라 예술사의 한 획을 긋고 있는 야심찬 제주출신의 젊은 감독 오명을 만났다. 그와의 만남은 서귀포의 겨울날의 따스한 햇살과 바람처럼 느긋하기도 하였지만 그 속에서 느껴지는 겨울 한기처럼 인터뷰 내내 긴장과 도전에 대한 설레임을 동반하는 특별한 만남이었다.

〈작품 활동〉

2009년 영화 '어이그 저 곳'으로 데뷔, 이 후 이어도(2011년), 뽕돌(2011년), 지술(2013년), 하늘의 황금마차(2014년), 김관홍(2017년), 파미르(2017년), 눈꺼풀(2018년), 인어전설(2018년)에 이르기까지 숨 돌릴 사이 없이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주요수상 경력〉

- 2013 제14회 부산영화평론가협회상 대상
- 2013 제33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국제비평가연맹 한국본부상
- 2013 제29회 선댄스영화제 월드시네마 극영화 경쟁부문 심사위원대상
- 2013 제19회 브졸아시아국제영화제 황금수레바퀴상
- 2013 제17회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영화감독조합상 감독상
- 2013 제17회 부산국제영화제 CGV 무비콜라주상

**제주출신으로 중앙 무대에서 영화감독으로 활동하시기에 여러 가지 제약과 애로점이 많았을텐데 소회가 어떠신가요

저는 미술 10년, 공연예술 10년, 영화가 10년으로 약 30여 년 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해 왔는데 과거에는 '제주도'하면 약간 경시하던 곳이었었는데 지금은 제주도 하면 가서 살고 싶은 곳, 지역문화가 독특한 곳이라는 인식이 아주 높아졌기 때문에 지역적 차별이 많이 사라졌다고 보인다. 예전에는 공연할 때 다른 지방에 가면 관객 분들 중에서 “한라산에서 공을 차면 바다에 떨어지나요.”라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제주라는 섬 문화에 대해 경시하는 풍조를 느낄 수 있었던 때에 비하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특히, 공연자로서 참석을 했을 때 중앙에서 온 예술인에게는 작품에 대한 관심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나에게는 첫 마디가 “어떻게 이 곳에 왔는지?”라는 그런 질문에서 상당히 기분이 나쁠 때가 많았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이 공연을 마칠 때는 반드시 나의 작품에 대한 질문을 하게 하리라.” 하는 다짐을 했었다.



****현재 ‘제주’라는 콘텐츠를 영화감독으로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우리는 ‘제주도’라는 곳이 어느 한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라고 보인다. 결국 서울도 대한민국의 어느 한 지역이다. 따라서 중앙 중심으로 사고를 하다보면 지역문화라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보면 ‘지역’이라는 단어에 의해 고유하면서 특색있는 문화가 평가절하되는 현상이 생긴다.

따라서 나는 내가 있는 곳이 중앙이고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한다. 꼭 서울이 중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주 이 곳에서 제대로 공부하고 준비한다면 오히려 다른 지역, 또는 중앙이라고 생각하는 곳보다 우리만의 감수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술, 연극, 공연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으로서 작업을 하셨는데 최근 영화라는 장르를 통해 작업을 하시는 이유는**

종합적인 표현 도구로서 매력을 느낀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 표현하고 싶은 세계를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예로 그림으로 4.3사건을 표현했을 때와 영화로 표현했을 때는 관객에게 전달하는 효과가 다르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작업을 하다보면 투자 측면에서 한계에 봉착할 때가 많다.

**** COVID-19로 인해 감독님께서 제주에 오랫동안 머무르시는 바람에 오늘의 만남이 성사되었고 제주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오명감독과 만나는 영상자서전 쓰기 프로그램>도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도민교육은 어떠셨나요.**

영상 산업이 다양해지고 있다. 넷플릭스(Netflix), 왓챠(Watcha) 등 신생 배급 시스템이 생기고 유튜브(YouTube)라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상 플랫폼이 생기면서 접할 수 있는 기화와 작품 제작 방식 등이 다채로워졌다. 특히, 넷플릭스(Netflix)가 보급되면서 단편이 아닌 시즌제 작품을 제작하게 되고 작업자들에게도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유튜브(YouTube)는 기존의 장비 시스템 모든 것을 다 허물고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혁명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서 어느 한 꼬마가 촬영한 영상을 제주도에 살고있는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단지 구글(Google)이라는 플랫폼 주체가 자본 추구가 중심이 되고 있어 문제가 있을뿐이다.

그런 측면에서 유튜브는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도구다. 제주평생교육진흥원에서 총 8회(16시간) 교육은 간단한 개인 작품 만들기에 너무 짧



다. 그리고 교육과정이 끝난 후 혼자 작업을 하다보면 조연을 구하기가 어렵다.

최근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단편 영화를 완성하는 과정으로 고급과정으로 진행했는데 이렇게 다양한 여러 기관에서 영상제작 과정을 진행하게 되면 향후 제주의 내용을 가지고 영상작업을 하는 사람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일반 도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영상제작에 대한 벽도 허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스마트폰 집약적 고급기술을 활용해서 누구나 영상인으로 거듭 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스마트폰 카메라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이해시키고 스마트폰에 대한 두려움을 깨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 이것이 진정 디지털 문해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지역을 위해서 가장 도전해 보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요.**

‘서귀포 영화제’를 만들고 싶다. 특정 주제나 영역의 국제영화제보다는 전주나 부산처럼 일반 국제영화제를 만들고 싶다. 제주 지역에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주형 특색있는 축제보다 보편적이면서 서귀포라는 아름다운 지명을 활용한 영화제가 필요하다. 특정 주제나 영역 영화제를 진행하다 보면 제약점이 많아지게 된다. 제주도와 도민의 의지만 있다면 이제는 충분히 가능한 인프라가 구축되었다고 생각한다.

****제주지역에서 문화컨텐츠 분야에 도전하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울 또는 중앙도 별거 없다. 이제는 서울보다는 제주살이를 부러워하는 상황에서 문화컨텐츠를 역수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제주를 동경하는 이 시기를 잘 활용해서 지금 제주의 퀄리티를 최대로 만들고 이를 활용하는게 제일 좋다.

예전에는 관광산업을 단순히 풍경을 팔아먹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제주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이 자연환경, 제주의 삶의 풍경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고급스럽게 표현할 수 있을지 고민한다. 하지만 현재 제주는 도시화에 떠밀려 점점 더 제주만의 풍경을 담는 작업이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는 제주도민들이 제주만의 풍경 만들기와 삶 속의 철학을 녹여낼 수 있도록 우리의 것을 가꾸는 일에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한다.

‘헌디 살고! 헌디 배우고!!’ 제주마을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

전략사업부에서는 최소 행정구역 단위인 마을까지 촘촘한 평생교육 서비스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도내 동(행정시) 또는 리(읍·면 소재시) 단위 마을을 대상으로 제주마을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을 운영하였다. 8월 9일부터 8월 27일까지 공모를 통하여 20개 마을 및 단체 등이 신청하였고, 심사를 통해 총 5개 마을 및 단체(대서리마을회 추자작은도서관, 풍남작은도서관, 창천리부녀회, 북촌리 새마을부녀회, 연미새마을 작은도서관)가 선정되었다. 선정된 마을 및 단체에는 교육 운영에 필요한 강사료 및 재료비 등 직접경비를 지원하였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마을의 공공 공간을 활용한 생활권단위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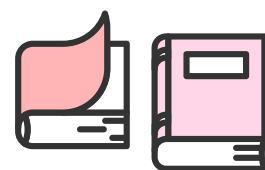
제주 평생학습 홍보와 평생학습 문화진흥을 위한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여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서귀포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11월 5일부터 8일까지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제주 평생학습 홍보·체험관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평생학습! 내 삶의 미래를 찾다’라는 주제로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진행된 이번 박람회에는 박람회 기간 동안 약 35만여명이 참가하였다. 제주 평생학습 홍보·체험관에서는 동백꽃 스토리 생활소품 만들기과 제주 4·3 동백꽃 브로치&마스크줄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번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를 계기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제주인의 삶과 배움이 공존하는 제주’의 평생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제주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 기관·단체 네트워크 구축

전략사업부에서는 4대 평생교육 분야별(아동·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네트워크 협의회 개최를 통해 분야별 공동사업을 추진하였다. 아동·청소년 분야는 11월 11일 제주 아동·청소년의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위한 통합적 성장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여·모성 분야는 12월 7일부터 8일까지 여성 평생교육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함께 일하는 즐거움이 있는 관계자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노인과 장애인 분야에서는 노인 및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안내지를 제작하여 연말 배포 예정이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앞으로도 도내 평생교육 기관·단체 간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기반으로 제주평생교육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다.



끝없는 배움과 도전의 열정, 시화(詩畵)로 열매 맺다

평생교육부는 11월 23일 도내 문해교육 학습자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제주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을 개최하였다. 이번 시화전은 '글자에 담은 희망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도내 62명의 학습자가 참여하였고 시화 작품을 통해 배움에 대한 열정과 기쁨, 감동적인 이야기를 느낄 수 있었다.

또한 11월 29일부터 12월 17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등 도내 다양한 기관에서 순회 전시회 개최를 통해 문해교육을 알리는 데 힘썼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앞으로도 문해교육으로 세상과 소통해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제주 바당 전복 캐뎃 글자 주워... 언제쯤 책 속 상군 될까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어 실 새 없이 물길 속을 누비느라 배움의 기회를 놓쳤던 제주 해녀들이 뒤늦게 연필을 잡았다.

평생교육부는 교육부 공모 2021년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에 선정돼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한림읍 금능리, 구좌읍 감녕리 어촌계 해녀들을 대상으로 '제주 해녀 꿈바당 학교'를 운영하였다. 40명이 참여한 이번 교육에서 글쓰기 수업과 병행해 자신의 삶과 해녀 이야기를 시로 써보고 동네 바다를 그림으로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스마트폰 활용법 등 디지털 문해교육도 함께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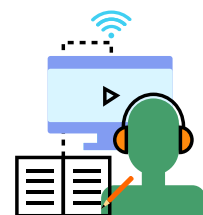
앞으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문해교육을 통해 배움의 행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앞장 설 예정이다.



AI의 첫걸음, 디지털 일자리 연계를 위한 인공지능 데이터 라벨링 교육 운영

최근 인공지능 데이터에 대한 시장 수요가 늘면서 '데이터 라벨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평생교육부에서는 데이터 라벨러 양성을 위해 인공지능 디지털 라벨링 교육을 운영하였다.

이번 교육은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데이터 라벨링 기초 이론과 실습 과정으로 총 10기수가 진행되었으며 도민 108명이 참가하였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앞으로도 디지털 뉴딜시대에 맞춰 제주시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지역기업 화인주택개발주식회사와SPC그룹 장학금 전달식 진행

인재육성부에서는 제주인재육성 장학사업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에 지역사회와의 공감대 조성을 위한 워크숍 개최를 비롯하여 제주상공인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도민사회의 호응을 통해 제주지역의 새로운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화인주택개발(주)는 10월 15일,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을 방문하여 장학금 1천만원을 전달하였다. 청년 기업가인 김윤식 대표이사는 “아직은 초창기 기업이지만 지역에서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을 위해 의미있게 사용하고 싶었는데,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제주지역 학생들이 현재의 고난에 좌절하지 말고 미래의 희망을 향해 도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전하게 되어 보람차고 행복하다”는 기부의 뜻을 밝혔다.

그리고 연이어 11월 30일(화) SPC그룹(회장 허영인)에서도 제주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1천만원을 기부함에 따라 감사의 뜻으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제주인재육성」 장학금 1천만원을 기탁한 'SPC그룹'은 1945년 삼미당을 시작으로 1971년 국민빵이라 할 수 있는 삼립호빵 출시를 비롯하여 파리크라상,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파스쿠찌 론칭 등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대표 기업이라 할 수 있다. SPC그룹에서는 “제주 지역사회와 상생협력하기 위해 지역 농산물인 당근을 재료로 만든 빵 출시를 통해 올 한 해 동안 파리바게트를 통해 판매한 수익 일부를 제주지역의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장학금을 전달하게 되었다”고 기부의 뜻을 밝혔다.



미래인재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SK텔레콤과 함께하는 AI활용 소프트웨어개발 인력양성

인재육성부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 해까지 SK텔레콤과 업무협약을 통해 AI체험 및 활용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지역인재를 양성하였다. SK텔레콤을 비롯한 유관기업들이 참여하여 중견 기획 및 개발자로 강사진을 구성하고 다양한 교육도구(소셜 AI로봇 알버트, NUGU 디벨로퍼 등)를 제공 받아 비전공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AI 이해교육 및 멘토링을 진행하였다. 더불어 교육과정 중 4차산업혁명시대의 기술 발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시제품 개발시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 SK텔레콤의 '티움(Tium)'을 방문하여 홀로그램 화상회의, 산업용 로봇, AI스마트 홈 시스템 등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제주도민들이 AI 및 디지털 기기 활용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생들이 AI체험강사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서 학습 결과를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하는 활동을 지속시켜 나가고자 노력하였다.

2021년도에는 제주도민 대상으로 연령대별 상관없이 교육을 진행하였다. 약 4개월 간의 장기간 교육을 통해 개발한 총 9개 시제품을 대상으로 기업 관계자들이 최종 심사를 거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상을 비롯하여 SK텔레콤 사장상, 인포마크사장상을 시상하였다.

구 분	팀명(팀원)	비고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상	①제주어 지킴이 (노○도, 황○호, 정○윤, 고○원)	상징 및 상금 (팀당 60만원)
	②훈 디 (김○록, 김○현, 오○주)	
SK 텔레콤 사장상	수호천사 (황○준, 양○희, 양○현, 김○지)	상징 및 상금
(주)인포마크 사장상	도민이우다 (김○정, 강○훈)	상징 및 상금



“놀멍, 쉬멍, 고치가는 탐나는 5060”

- 장년층생애재설계지원운영사업은 제주지역의 예비 노년층의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장년층이 은퇴 이후에도 활발한 사회참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탐나는 5060 인생학교, 5060재능나눔지원단 운영, 공동체 씨앗동아리 활성화, 제주공동체문화활동가 육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2021년 장년층생애재설계지원사업을 운영하여 탐나는 5060 인생학교 봄·가을학교 집중탐구 운영, 117명 참여, 공동체 씨앗동아리 8팀, 51명 지원, 제주공동체문화활동가 23명 육성, 150회 활동 참여, 5060재능나눔지원단 활동가 66명, 1,050회 활동을 전개하였고, 이를 통해 예비노년층인 5060세대가 은퇴 이후에도 지역사회의 한 축으로 소속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을 소개합니다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교육을 받고 싶는데, 너무 멀어요, 우리가 사는 곳은 세화거든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마중물배움터 발굴과 찾아가는 교육 확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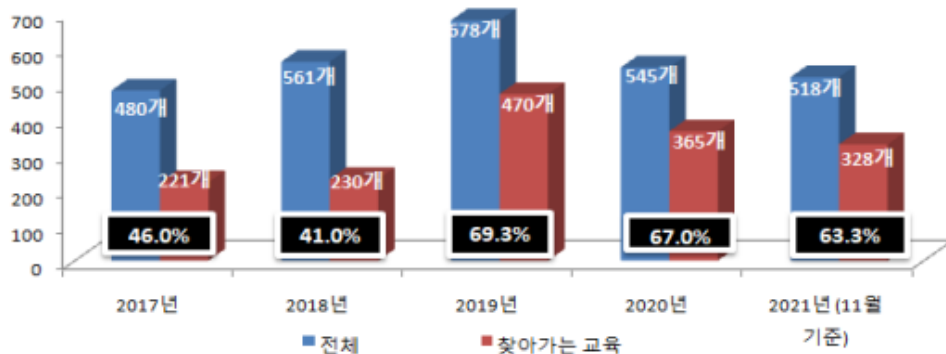
마중물배움터는 읍면 지역 중심으로 센터 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찾고 협약을 통해 상호 유대성을 강화하면서 제주지역에 촘촘한 교육안전망을 구축하자는 바람을 가지고 2017년부터 마중물배움터 발굴·활성화 사업을 이어온 결과 현재 28개의 마중물배움터가 있다.

찾아가는 교육은 마중물배움터가 아니더라도 센터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이라면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된 교육 시스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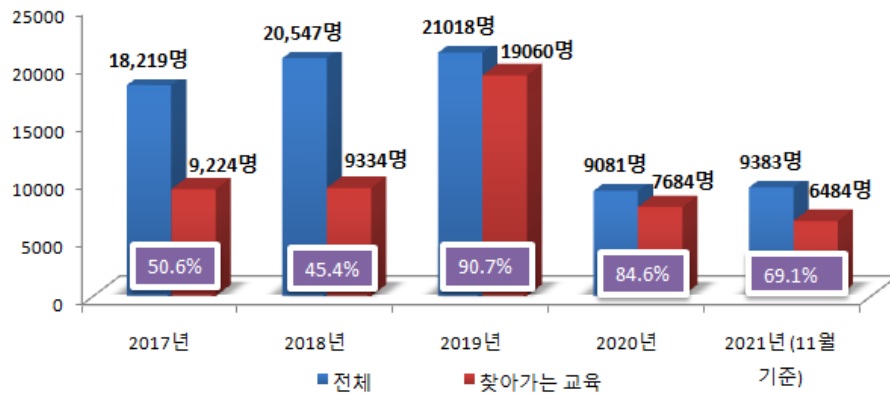
마중물배움터와 찾아가는 교육은 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학교, 마을협동조합 등 어디에서든지 이루어진다. 그렇게 해서 2017년부터 2021년(11월기준) 만나는 학습자는 총 72,248명에 이르고 센터교육활동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찾아가는 교육은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교육을 읍면(도서)지역까지 전파 시킬 수 있는 매개자 역할을 하고 있고,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교육 전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상호 의견 교류의 장으로 활용 되어 센터 교육방향 및 콘텐츠 개발에도 대단한 기여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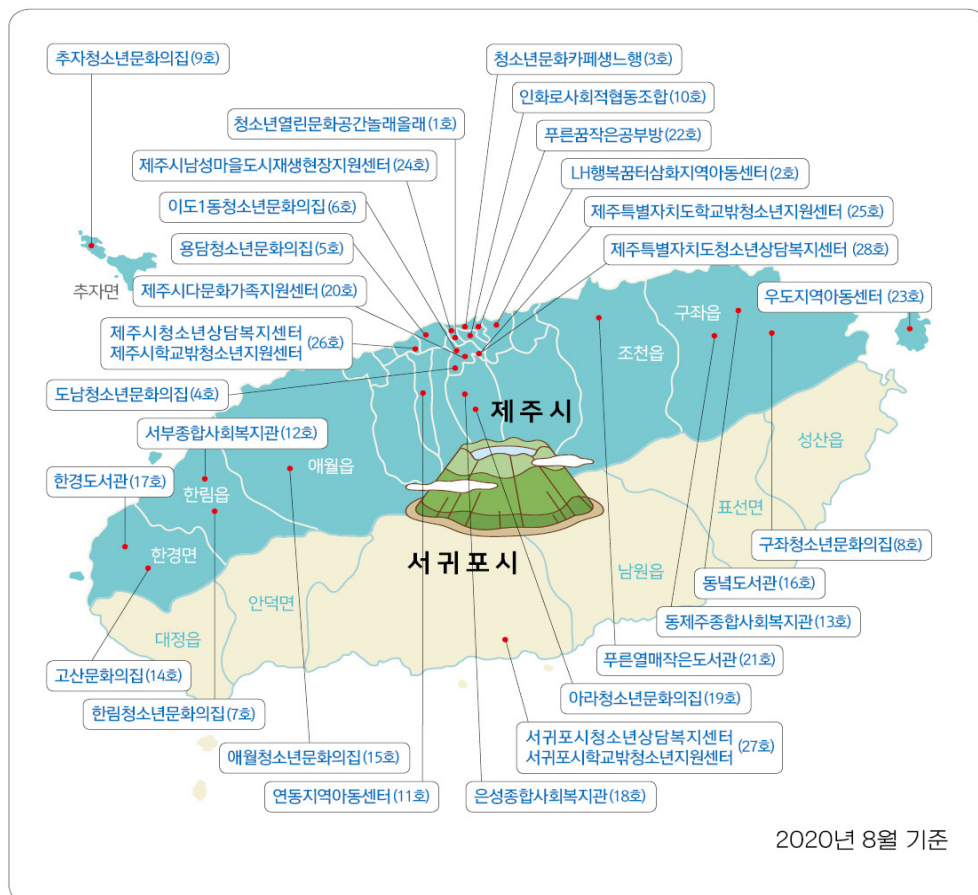
마중물배움터와 찾아가는 교육을 처음 기획할 때 아동·청소년의 잠재된 자기주도성을 마중하여 내재된 재능과 능력을 이끌어 내 보자는 바람이 5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같이 고민하고 실천하는 든든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7~2021 교육 운영 현황]



[2017~2021 교육 참여 인원 현황]



[마중물배움터 현황]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을 소개합니다

중국어체험학습관은 소통형 외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전문적 훈련프로그램, 운영시스템 마련 및 도민의 외국어 언어장벽 해소와 의사소통 역량증진을 통한 글로벌 관광 제주 환경을 조성하고자 올해 2021년 외국어교육 프로그램 총 289개 프로그램 운영하였으며, 총 2,049명이 참여하였다.

기존 중국어 외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으로 외국어 교육 영역을 확대하였으며, 찾아가는 외국어 교육(전화중국어) 운영으로 읍면지역도민에게 열린 학습권을 보장하였다.

또한 기업맞춤형 외국어 교육과 제주소상공인 외국어 번역지원 사업 운영, 음성학습 자료 제공서비스 등으로 도민, 소상공인, 기업 등 다양한 계층에 외국어 관련 사업을 진행하였다.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은 제주의 옛 도지사 관사를 새롭게 단장하여 자연과 책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진 소통의 공간이 되고 있다. 2021년도 ‘환경과 생태’ 주제로 자연과 함께 어린이와 부모가 자유롭게 독서를 향유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제주를 가꾸는 어린이들이 꿈을 키워 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독서진흥사업

- 소장자료를 활용한 ‘꿈바당갤러리’는 37회 진행, 문해력 및 창의력 향상을 위한 ‘꿈바당어린이독서회’, ‘꿈바당학부모독서회’와 같이 이용자들의 활발한 독서활동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었다. 또한 도서관 정원을 모티브로 한 ‘꿈바당 책 둘레길’은 1,301편이 접수되어 이용자 정서와 소양 증진을 위하여 힘썼으며, 책읽기와 글쓰기의 활동을 권장하기 위해 올해 제 2회를 맞이한 ‘독서영상공모전’은 134명 참여, ‘제주어린이작가글짓기대회’는 101편의 작품이 접수되어 이번 공모전에는 총 122명이 수상하는 기쁨을 나누었다.

평생교육사업

- 2021년도 테마가 있는 프로그램은 34개 과정, 특별프로그램 11개 과정이 진행되었고, 비대면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의 독서증진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예술적 경험을 일깨워주었다. 제주지역 독서문화교육환경의 평등 조성을 위한 ‘찾아가는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프로그램’ 운영은 제주도내 작은도서관 28개소, 동네책방 3개소, 지역아동센터 7개소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모두 134개 과정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제주도내 전역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에서는 문화적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였다.

운영관리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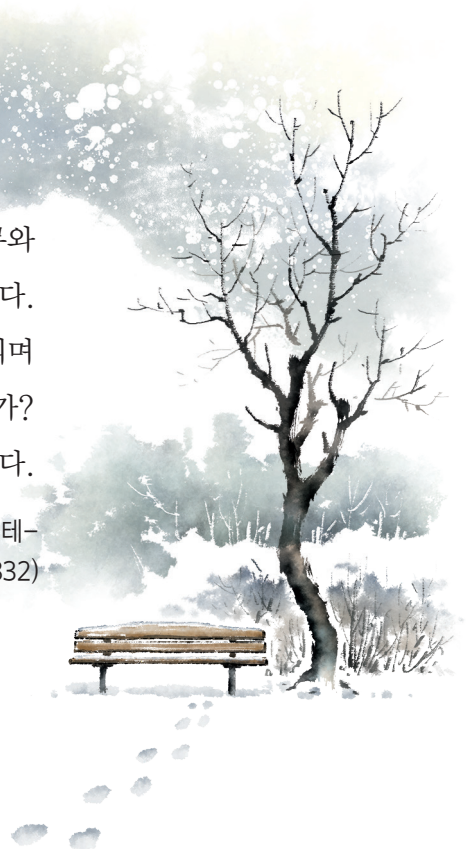
-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이용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정원관리, 건축물, 전기 안전관리등 정기적으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검을 진행하며, 불편함 없는 도서관 최적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매월 발간되는 ‘베롱베롱 글바당’ 웹진을 통해 도서관소식과 제주지역관련 이야기를 풀어내 이용자들에게 도서관 홍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서관의 한 해 기록이 모두 담긴 결과물이 책자로 발간 될 예정이다.





때로는 우리의 운명이 겨울의 과일 나무와
 참 닮아 있다고 생각한다.
 누가 이러한 앙상한 가지가 푸르게 되며
 꽃피우리라고 생각하겠는가?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또 그것을 알고 있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
 (1749-1832)



사업팀장 윤지수

평생학습의 시대적 요구와 도민들의 열망으로 (재)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이 지난 2021년 4월 독립법인으로 출범하였다. 독립기관으로 출범하기 전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은 2015년 1월부터 경남연구원에 위탁운영 되고 있었다. 소규모의 조직운영으로 광역단위 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과 기능의 한계점, 도민들의 평생학습 욕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 전국적으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독립법인 설립등의 영향으로 늦게나마 (재)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이 독립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진흥원의 조직체계는 1실(경영기획실) 2팀(사업운영팀, 학습정보팀)으로 정원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업무는 평생교육 기회·정보 제공,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등이다. 아울러, 도민들의 전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체계구축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참여 지원 및 시군-대학-민간기관 등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협력을 위해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경남 평생학습 실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였다.

평생학습 체계구축, 평생학습 네트워크, 평생학습 배움확산, 평생학습 문화가치라는 4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4개의 바퀴가 원활하게 움직일 때 기관의 안정성과 효율성으로 도민들의 배움의 기회는 확대될 것이다.

기관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보다도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 도민들이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움의 기회와 여건을 조성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지원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그 중 도민들이 원하는 강좌를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장소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강좌나르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한 경남 평생학습배움터 및 도민 개개인의 지식과 역량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시민지식강사 양성·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남도민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나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평생학습이 하나의 큰 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의 생활방식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으며 교육의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도민들에게 보다 더 촘촘하고 연령계층에 맞는 평생학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다함께 성장하여 더 큰 경남도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재)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이 앞장서도록 하겠다.



주요안내

제주국제자유도시 달성 및 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연한 전국 최초의 특수목적형 공익법인 이면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지정기부금 안내

1 참여방법(일반지정·용도지정 기부)



일반지정 기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으로 대상, 금액, 집행 등을 사용권한 일임

용도지정 기부

기부의도, 목적, 장학금(지정명칭 사용, 지원방법) 등 사전계획에 따른 기부

1 세제 혜택 : (기부자)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1 기부자 예우

- 기부자 이름의 장학사업 운영(제안시)
- 재단 홈페이지 게시 및 명예의 전당 명패 등재
- 보도자료 배포 및 홍보
- 기탁식 및 수여식 개최시 초청, 감사패 전달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주요소식 안내 등

사랑의 마음을
기부해요



내손안의 배움터

‘제주평생교육다모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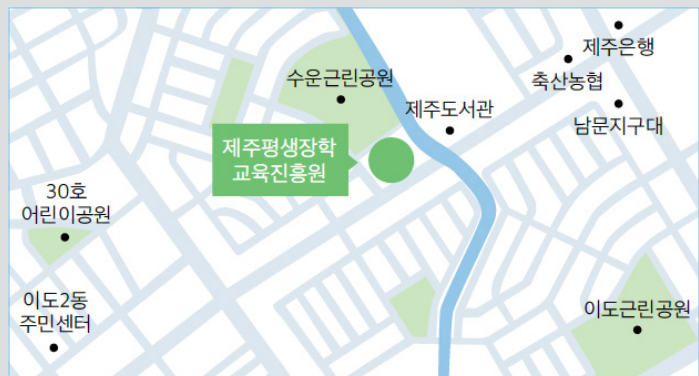
도민의 평생학습 참여 확대를 위해 제주지역의
평생교육정보를 다모아(damoa)전해드리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https://jiles.or.kr>



재)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주도 제주시 연삼로 473. 2, 4층(이도2동)
TEL : 064)744-9852 | FAX : 064)726-9961
WEB :



제주시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제주도 제주시 연오로 140(연동)
TEL : 064)748-8101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제주도 제주시 연오로 140(연동)
TEL : 064)745-7101

제주시 중국어체험학습관
제주도 제주시 연삼로 473. 2층(이도2동)
TEL : 064)755-9511

서귀포시 중국어체험학습관
제주도 서귀포시 동홍로 104 종합복지센터. 2,3층(동홍동)
TEL : 064)733-1080

발행일 : 2021. 12 | 발행처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